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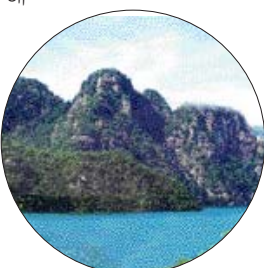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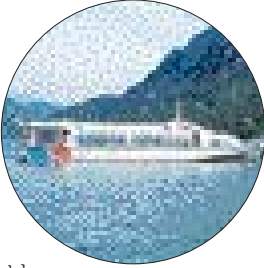
트래블

충주호에서 맞는 5월

신록이 점점 푸르러져 가는 5월이다. 초록을 만끽하기 위해 충주호로 떠났다. 장화나루와 청풍나루, 충주 나루를 오가는 배에 몸을 싣고 절경을 감상해보자. 말 그대로 신선놀음이 따로 없다. 나뭇잎에는 물이 오르고, 그 푸르름이 물빛에 스며들고 있는 요즘, 장화나루와 청풍나루를 왕복하는 배를 탔다. 절경을 감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봉우리마다 옛 이야기들이 스며들어 있어 더욱 의미 있는 배틀이다.

초록 만끽 말 그대로 '신선놀음'

장화나루와 청풍나루 사이에 단양 8경 중 2경인 구담봉·옥순봉을 볼 수 있다. 깎아지른 듯한 장엄한 기암절벽 위의 바위가 거북을 닮은 것이 구담봉의 유래. 조선 인종 때 이지번이 벼슬을 버리고 은거, 푸른 소를 타고 강산을 청유하며 칠년쯤을 구담의 양쪽 언덕에 매고 비학을 만들어 타고 왕래하니 사람들이 이를 보고 신선이라 불렀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제비봉과 금수산, 멀리 월악산이 감싸 충주호 수운관광의 최절경지로 손꼽히고 있다.



희고 푸른 바위들이 대나무 숲 모양으로 천연적이거나 함차게 치솟아 절경에 선비의 모습을 하고 있는 봉우리를 옥순봉이라 한다. 옥순봉은 원래 청풍호 속에 있었는데 조선 명종 때 판기 두항이가 단양 군수로 부임하는 퇴계 이황 선생에게 옥순봉을 단양군에 속하게 해달라고 청했다. 퇴계 이황 선생이 청풍 부사에게 청했지만 청풍 부사가 허락하지 않자 퇴계 선생이 석벽에 '단구동문(丹丘洞門)'이라는 글을 양각, 이곳을 단양의 관문이며 군 경계로 정했다. 뒤에 청풍 부사가 남의 땅에 군계(郡界)를 정한 자가 누구인가를 알기 위해 옥순봉에 가보니 글씨가 함차고 살아있어 누구의 글씨냐고 묻자 퇴계의 글씨라고 하니 감탄하면서 옥순봉을 주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단양 팔경 중 2경 구담봉·옥순봉

옥순봉은 소금강이라는 별칭을 가질 정도로 절경이다. 주변에는 강산대와 이조대가 마주하고 있으며, 강산대는 높이 15m의 층대가 있고 대 위에는 100여 명이 앉을 수 있다. 판기 두항이 풍기군수로 전임한 퇴계 이황을 그리면서 강산대 아래에 초막을 짓고 살다가 죽으면서 '이곳에 묻어 달라'하여 장사 지냈다. 그 후 기녀들이 이곳에 오르면 반드시 술 한잔을 그의 무덤에 올렸다. 충주댐 수몰로 강산대 위 양자바른 산에 이장, 매년 판기 두항의 낚을 기리는 제를 올리고 있다.

봄바람을 맞으며 봉우리마다 얽힌 전설을 되새기며 감상하고 싶다면 한 시간 반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간다. 신록의 계절 5월을 배 위에서 맞이하는 기분이 새롭다.

/매일신문=최세정기자 beacon@msnet.co.kr

/사진=정재호기자 newj@msnet.co.kr

가는 길 소백산관광공장으로 바로 가기 위해서는 중앙고속도로 타고 예천 IC에서 내려 우회 도로로 3km 정도 간다. 우계삼거리에서 단양·상리 방면으로 좌회전, 30분 정도 산길을 오르면 저수저를 넘어 도착할 수 있다. 충주호로 가려면 중앙고속도로를 타고 단양IC에서 내리는 것이 빠르다.

먹을거리 소백산관광공장 한우전문식당에는 목장에서 직접 생산하는 한우를 맛볼 수 있다. 한우 암소꽃등심(100g 7천원), 갈비살(100g 7천500원), 암소뚫(100g 5천원) 등 부위별로 식당에서 구워먹을 수 있다. 식당 이용료 1인당 2천500원을 내면 밀반찬 등이 나온다. 이곳에서 키우는 한우는 '황초와우'로, 제철에서 재배한 약초를 먹어 키운다. 여름에는 야외 숯불구이 시설에서 고기를 구워먹을 수도 있다.

어 허~ 뱃놀이로구나



장화나루와 청풍나루, 충주 나루를 오가는 배에 몸을 싣고 절경을 감상해보자. 신록이 점점 푸르러져 가는 5월, 충주호에는 옛 이야기와 어우러져 초록이 짙어지고 있다.

충북 단양 숨겨진 즐거움을 찾아라

◆소백산 관광목적장-충북 단양과 경북 예천의 경계로 백두대간에 소백의 주봉에서 흘러내린 촛대봉과 옥녀봉 사이에 동지를 틀고 있다. 해발 850m 고지 저수령 35만평 초지에 단양축협이 한우 300여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푸른 언덕 위에 풀을 뜯고 있는 소의 모습은 신선한 풀내음과 함께 마음의 여유를 더해준다.



소백산 관광목적장

이곳에서는 관광과 함께 숙박·식사가 가능하다. 통나무식 농도형 방갈로 6동과 민박형 숙박시설이 갖춰져 있다. 고도가 높아 한여름에도 에어컨이 필요없을 만큼 서늘한 날씨로 피서객들에게 인기가. 방갈로 앞에는 수영장이 있다. 뒷밭에서 가꾸고 있는 무궁화 상추·고추 등을 직접 따 먹을 수 있는 것도 장점. 축산체험 초가집도 있다. 통나무 방갈로(5인1실) 평일 8만원, 주말 10만원. 예천(4인1실) 4만원. 목장 내에 촛대봉 등산로가 있다. www.sbsanfarm.co.kr 043)422-9270~1.



방곡도에촌

◆방곡도에촌-장화나루에서 20km정도 달리다 보면 나온다. 17세기 경부터 백자와 분청사기를 생산한 조선시대 민속유물

자의 집산지로, 이곳에서 발견된 옛 가마터는 조선시대 민요자의 변천 양상을 확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7명의 도예인이 전통적인 장작가마를 이용해 옛 방식 그대로 도자를 굽고 있으며 도예교육원, 도자기전시관, 판매장이 있다. 도자기를 만드는 현장을 방문할 수 있으며, 하루 전 예약(010-2050-5607)하면 직접 도자기를 만들어볼 수도 있다. 참가비는 1점당 1만원. 장화나루에서 방곡도에촌으로 향하는 길은 드라이브코스로 최고다. 월악산국립공원을 접어들면 굽이굽이 계속 이어지는 길은 졸로루네. 어느 곳이든 차를 세워 천천히 발을 담가 보는 것도 좋다. 도자기 전시판매장 043)422-5010.

◆사인암-단양 8경 중 하나. 대강면 사인암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맑은 운계천을 따라 명명된 운선구곡(雲仙九曲) 중 제7곡에 해당. 고려 말 대학자 역동 우탁(吳東 禹奭) 선생이 사인(舍人) 벼슬로 재직 할 당시 이곳에서 청유했다 하여 조선 성종 때 단양군수로 재임한 임재공 선생이 명명했다. 수직으로 치솟은 석벽은 독특한 형취를 자아낸다. 조선시대 화원인 단원 김홍도를 비롯해 많은 시인묵객들이 이곳을 찾아 아름다운 그림으로 남기거나 석벽에 각자(刻字) 하기도 했다.

대인동심일부동산
☎(대)223-1140, 5210 011-602-2532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료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첨단월계공인중개사
☎(대)972-4585 011-604-6205
★급매매★
●첨단 인근 비아름 일반주거 지역 1000평 다세대주택, 불류창고, 목자실버시설

금보부동산컨설팅
☎(대)261-8949 011-602-2233
▶토지매매
-원산구 청풍동 산상지 1,941㎡ 매가 2억 4,000만원

법원경매 전문
지지경매컨설팅(주)
(법원 경매입찰장 옆)
☎ 062-226-0047 ~ 8
명확한 권리분석, 명쾌한 명도, 명쾌한 수익성 분석에 의한 재테크 전문상담

법원경매 전문회사
- 불 앞서가는 사람들 - (주)옥션코리아
(법원경매입찰장 옆) 상담전화 : (062) 222-8446
성공적 파트너 / (주)옥션코리아 무료상담